‘개화’된 세상에 살다보니 거리에서 눈에 밟히는 것 중 우리 것이 드물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들은 대개 서양식이고, 그것이 이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됐다. 정장(正裝)이라고 하면 으레 양복이요, 대통령이 두루마기를 입으면 뉴스가 된다.

‘허리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구멍 숭숭 뚫린 가죽 허리띠 를 생각하면 안 된다. 허리띠는 1920년대까지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상용됐던 ‘옷’이다. 길이 1m정도, 폭 20~25cm 정도의 천으로 만든 허리띠는 그 명칭과 달리 가슴가리개였다.